

# 可樂洞 土壙墓

## 出土의 黑陶와 甕棺

金 貞 培

(1)

一九六九年 八月二五일부터 同年 九月二二日 까지 高麗大學校 博物館은 城東區 可樂洞에서 二基의 土壙墓를 발굴한바 있다. 即 一、二號를 高麗大學校가, 三、四號를 文化財管理局이 담당하였다. 總四基의 墳墓中 第二號墳에서 黑陶 甕棺 木棺 土器等과 함께 腐飾된 鐵製遺物이나 와 그들이 나타내는 文化的 性格과 年代決定에 많은 資料를 提供하고 있다.

이 發掘은 故 李弘植 教授의 責任下에 遂行되었던 것이고 또 當然히 이 發掘에 對한 報告書가 나왔어야 했으나 不幸히도 昨年에 他界하셨기 때문에 現今까지 미루어 왔던 것이다. 故 李弘植 教授에 依해서 黑陶에 關해서만 간략한 소개 정도의 言及이 있었을뿐 ① 學界에 資料조차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故 筆者는 이에 關한 報告書가 끝나오리라 믿기에 여기서는 자세한 說明이나 그 過程은 생략하고 第二號墳에서 나온 一部 遺物인 黑陶와 甕棺에 對해서만 略述하려고 하는 바이다. 따라서 本稿는 報告書와는 別個의 性格이며 이미 黑陶가 간단하나마 世上에 알려진바 있으므로 關係 責任者의 양해하에 이 두 遺物에 對하여 筆者의 見解를 밝히는 것이다.

(2)

여기의 黑陶와 甕棺은 第二號墳의 東北쪽의 길이 一・二三m의 同一平面上에서 出土되었다. 黑陶가 土壙墓內에서 甕棺과 함께 出土되었다는

點에서 뿐만 아니라 木棺과 鐵釘等 鐵器遺物이 多數 나왔기 때문에 그意義는 자못 크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韓國에 있어서 土壙墓는 最近 幾年內에 그 存在가 뚜렷하게 나타난墓制인데 가장 代表的인 例로는 평안남도 강서군 臺城里의 土壙墓郡을 ② 들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우리의 경우 土壙墓가 알려진 것으로는 瑞山郡 大山面 明智里 ③와 一般的인 可樂洞이 좋은 例가 될 것인바 慶州 九政里의 遺物과 또 이를 報告한 論文으로 ④ 미루워 볼때 土壙墓임을 알 수 있다. 土壙墓가 우리의 注目을 要하는 바로는 細形銅劍等을 多量으로 出土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從來 出處를 몰랐던 細形銅劍이 바로 이 土壙墓에서 나온다는 事實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勿論 細形銅劍等이 이 土壙墓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土壙墓에서 반드시 細形銅劍等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資料들은 많은 경우 鐵器와 함께 나오고 있고 또 그러한 것이 常例이기 때문에 土壙墓는 鐵器時代의 墓制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銅劍이 鐵器時代일수만은 없다고 본다. 臺城里의 一、二基의 墓는 青銅器를 爲主로 하여 약간의 鐵器類가 있는 경우도 있고, 거의 鐵器 爲主의 副葬品이 나오기도 하는 데 이와 같은 差異點에 着眼하여 一、二基 土壙墓의 形成 過程을 다음과 같이 四期의 時間的 差異로 區分하여 본바 있다. 即 청동검모와 거여구가 나온 第一〇號, 一、二號를 한 시기로 보고, 鐵製短劍이 出土된 제八호와 一六호를 다음으로, 鐵製長劍과 鐵製利器가 나오는 제六호, 一三호, 一五호를 그 다음으로 보고, 끝으로 제四호와 같이 목곽묘의 부장품을 갖출 것을 가장 늦은 時期의 것으로 간주하였다 ⑤. 나아가서 第一〇號墓에서 出土된 遺物들이 非漢式的 것이라는 點을 들어 漢代의 유물이나 樂浪 古墳보다 先行하는 時期임을 主張하였다 ⑥. 이와 같은 몇가지 點을 留意하면서 이번 可樂里 土壙墓의 出土品을 본다면 青銅器의 遺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事實에서 時期적으로 더 늦은 鐵器時代의 土壙墓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瑞山郡 大山面의 土壙墓가 鐵器만을 낸다는 點에서 비슷한 반면 慶州의 九政里에서는 銅劍 石器類도 나온바 있어 性格이 약간 相異함을 곧 알게 된다. 비록 土壙墓中에는 非漢式的 遺物이

있으나 一部에서는 또한 다분히 漢의 影響이 ⑦ 보이는 것이 있음도 注目해야 할 點이며 上記한 바와 같은 土壙墓의 性格을 上古史의 展開過程에서 어떻게 連結시켜 解釋해야 할 것인가는 다음 機會에 言及하도록 하겠다.

(3)

可樂洞 土壙墓의 遺物中에서 鐵器類가 보인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餘他的 土壙墓와 마찬가지로 完全 鐵器時代로 접어들었음을 意味한다. 따라서 이곳에서 나온 黑陶의 甕棺이 또한 鐵器時代의 所産인 疑問의 餘地가 없다. 여기서 우리는 黑陶가 靑銅器와 함께 發掘된 大田市 槐亭洞의 例를 想起하지 않을 수 없다. ⑧. 黑陶가 靑銅器遺跡에서 그리고 鐵器를 갖춘 土壙墓에서 나온다는 것은 時間的 繼起性으로 볼 때 重要的 意味를 내포하는 것이다. 北韓의 여러곳에서도 黑陶의 存在가 알려진 바 있고 漢江流域이나 琴湖江 流域에서도 報告되고 있지만 上述한 바와 같이 漢江이나 琴湖江 流域의 경우 靑銅器나 鐵器와의 伴出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黑陶가 無文土器와 함께 주로 出土되고 있어 그 性格이 대개는 윤곽을 보이는 것이지만 無文土器도 靑銅器를 동반하는 경우와 石器만을 伴出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地域的인 文化上的 差異에서 招來되는 混亂이 一律的인 解釋方法에 제동을 加하고 있는 것이다.

今般 可樂洞 出土의 黑陶는 그림에서(圖2) 볼수 있는 바와 같이 完形의 黑陶로 高 一六·六cm 腹徑 一八·四cm 口徑 八·六cm, 밑바닥의 지름이 九cm의 壺로서 文樣이 역시 獨特하다. 肩部의 上단에 一열의 점선이 돌려 있고 바로 밑에 폭 二cm의 幹線格文이 있으며 그 밑에 二열의 점선이 돌라져 있다. 또한 黑陶의 他例와 같이 두께도 口緣部가 〇·二五cm, 腹部가 〇·三cm로 매우 얇은 편이다. 또 하나의 黑陶도 壙의 西北區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은 前者와 同一하나 文樣이 매우 특이하다. 肩部의 上下에 점선이 있고 그 사이의 空間을 一四개로 나누어 간격을 띤 뒤 가면서 幹線格文을 넣고 있다.(圖3) 위의 두 黑陶에서 볼수 있는 文樣은 지금까지 發掘 蒐集된 다른 黑陶에서는 찾아 볼수 없는 形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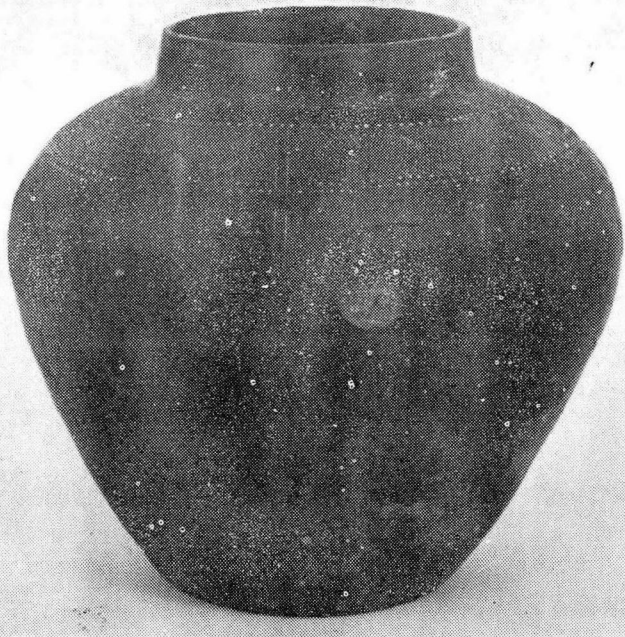


圖1：黑陶A

이다. 뿐만 아니라 中國의 例를 보더라도 이것과는 매우 相異하다. 이 點은 黑陶에 關하여 從來 생각해온 바를 再考할 수 있는 問題點을 던지는 것으로 思料된다.

이 土壙墓에서 나온 甕棺은(圖4) 合口式이 아닌 單甕이며, 高四六cm 口徑 二九·五cm로 밑은 一直線은 아니지만 세워 놓을 수 있는 程度로 安定性있게 되어 있다. 色은 朱황빛을 띄우고 格子文을 갖고 있는데 軟質의 土器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堅질은 더구나 아니며 新昌里 甕棺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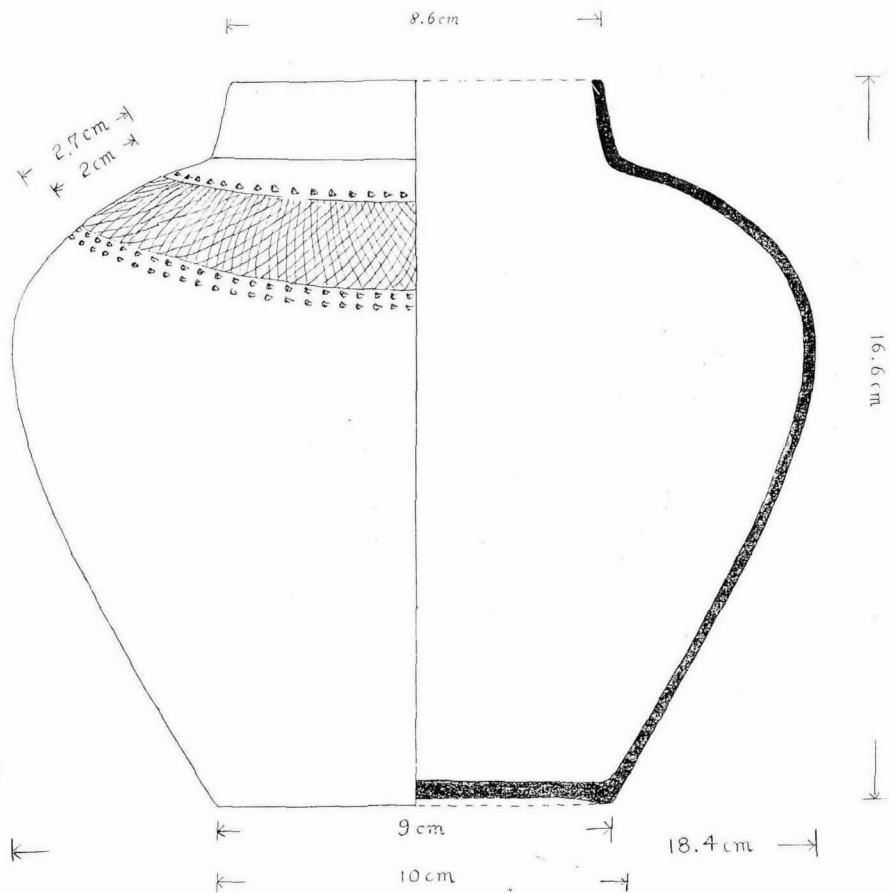


圖 2：黑陶A實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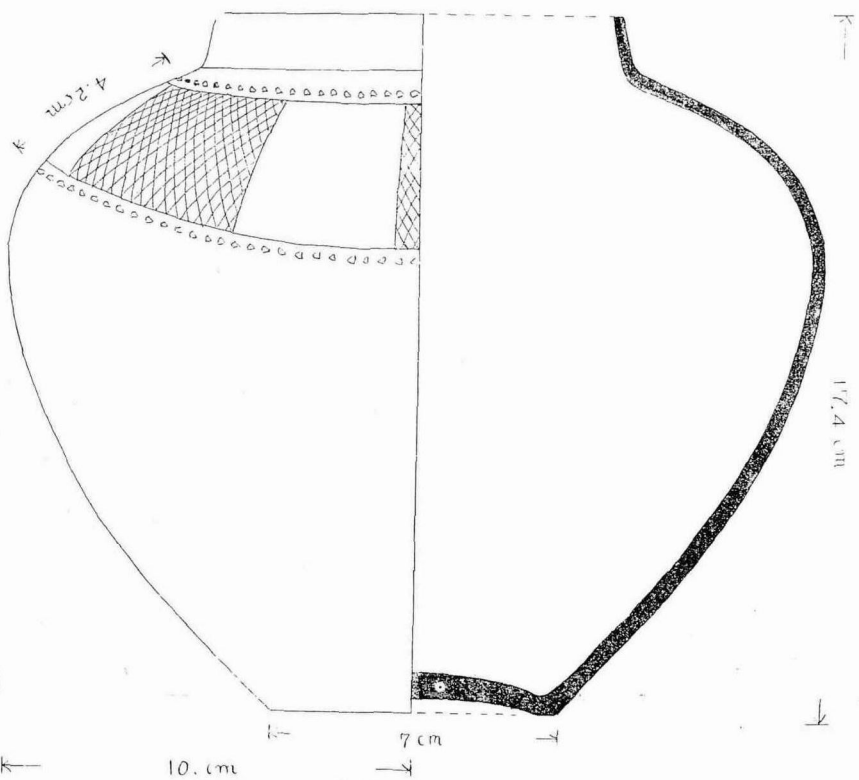


圖 3：黑陶B實測

비슷하다고 보는게 옳을것 같다. 이 單甕은 다른 土器片으로 덮을수 있는 甕을 具備하고 있다. 臺城里 土壙墓群에서도 甕棺이 나온바 있는데 第二五號墓에서는 土壙과 甕棺이 함께 存在하므로 同一時代의 墓制인것을 알 수가 있다. 甕棺에서 靑銅劍이 나오는 例도 있지만 可樂洞에서 처럼 鐵器時代의 墓로서도 盛行한 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遼陽三道濠에서 發掘된 幼兒의 甕棺이 半兩錢을 出土했기 때문인데 이는 實年代로 B·C 一세기에서 A·D 一세기경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⑩ 그러나 이 甕棺의 크기로 미루어 幼兒일 것은 틀림없는데 屍體를 直接 넣었는지 洗骨인지는 確言할수가 없다. 거리를 두고서 木棺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 土壙墓의 성격은 足히 짐작되는 것이다. 問題는 이 甕棺의 分布와 해석이 매우 폭넓기 때문에 단순한 言及은 意味가 없는 것이다 ⑪. 土壙墓와 甕棺이 各各 戰國時의 墓制이고 또 中國 東北쪽에 많이 密集해 있으므로 우리의 關係가 쉽게 연결되는데서 부 古루지와와 岾岾의 鎭동말엽 鎭기시대 초엽의 支配의 墓制가 土壙墓와 甕棺임을 들어 이 方面과의 연결을 考慮하는 意見도 있는 것이다. ⑫. 左右間 土壙墓와 甕棺이 結合된 좋은 例證을 今般 發掘을 通해 얻은 셈이다. 이 點에서는 臺城里의 土壙墓와 매우 유사하다.

(4)

可樂洞 土壙墓에서는 木棺의 흔적뿐만 아니라 모서리에서 그대로 鐵釘을 찾아내므로서 木棺에 木을 使用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臺城里 土壙墓의 경우를 본다면 一般의 木棺을 사용하고 있지만 第八、九號와 같이 木棺을 使用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⑬. 그러므로 木棺을 使用한 경우라도 棺釘을 쓰지 않은 臺城里의 土壙墓群과 棺釘을 사용한 이면 可樂洞의 土壙墓와는 뚜렷한 差異點이 되고 있다. 이 鐵釘은 漢 및 漢以後에 使用된 것이므로 ⑭ 이와같은 基準 設定에서 보면 可樂洞의 土壙墓 年代는 臺城里보다 後代의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黑陶에 關係 言及해온 論調는 中國의 龍山文化와의 關係에서 取及되었고 대체적으로 中國黑陶의 影響을 韓國의 黑陶에서 찾아내

곤 하였다. 勿論 筆者도 上記한 基本立場의 正論을 理解하는 바이지만 韓國에서 나오는 黑陶마다 中國 龍山文化 影響의 黑陶냐 하는 點은 屢 再考의 餘地가 있다고 言及한다. ⑮. J.G. Andersson은 中國 黑陶의 特色인 甕 두개가 없다는 뜻에서 所謂 “Egg-shell Ceramics”라기. ⑯ 命名 以來 많은 學者들이 이를 使用하고 있다. ⑰. 그러나 鐵器時代에 나오는 黑陶까지도 一貫해서 같은 解釋이 적용되는 是는 未知數이다. 現在 滿洲에서 出土되는 黑陶에 對해서도 두가지 說, 即 하나는 中國黑陶의 影響이라는 見解와 다른 하나는 滿洲에서 獨自의 發生했다는 意見이 있다는 點이다. 우리의 경우 中國의 黑陶와 연결 시킨것은 오래전부터 인바 韓國自體內에서 發生할 可能性, 滿洲等地와의 關係, 그리고 Siberia 地域과의 相互關係는 없는가 하는 自問을 한번 가질만도 하다. 여기서 韓國의 獨自의 이라는 말은 實사 中國의 影響이 있다하여도 오랜 時日의 經過에서 오는 韓國化된 變形을 말한다.

吉林의 新石器文化를 論하는 가운데서 微量의 黑陶片이 나왔으나 이를 곧바로 龍山文化와의 關係를 斷定하지 않고서 全般的인 遺物의 상황으로 보아 龍山文化와 關係있는 것으로. ⑰ 解釋한 觀點도 興味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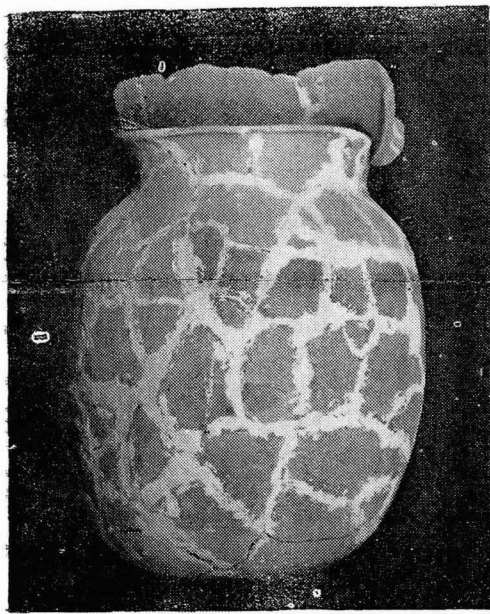


圖 4 : 甕 棺

이다. 韓國의 黑陶가 鐵器時代까지 繼續해서 나오기 때문에 靑銅器時代의 黑陶等과 어떻게 區別해야 되는가는 重要な 問題지만<sup>19</sup> 이 難問題는 靑銅 鐵器兩時代의 解釋과 결부되 있으므로 學者에 따라 相異한 見解가 나올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可樂洞 土壙墓의 黑陶는 매우 重要한 하나의 資料가 되는 것이다. 會寧 五洞의 遺跡은 제 六호 居住址를 除外하면 靑銅器時代의 것인데 검은 빛갈의 마연토기가 六호 居住址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 六호 居住址의 퇴적층은 鐵器時代에 屬한다<sup>20</sup>. 이 보고자는 이같이 土器가 독로강 유역에도 보이고 있음을 言及하면서 B. A. Irinskaya의 報告를 引用 Daerri 강 서쪽지역에 서기전 一천년기말 내지 一천년기 초에 걸쳐서 서로 連関관계가 있는 그러한 土器가 있고 그것은 또 중부 유류의 여러 文化와 關聯된 것임을 말하고 있다<sup>21</sup>. 筆者는 앞에서 一般 可樂洞 出土의 黑陶가 지금까지 韓國에서 出土된 어느 黑陶보다 特徵的인 面이 있음을 말한바 있거니와 또한 中國의 例에서도 이같은 것은 없음을 들어 적어도 鐵器時代에 들어와서의 黑陶는 從來의 中國 한반도의 해석으로부터 삼가할 必要가 있음도 이야기 한바 있다. 그러나 상급한 結論이라 Siberia나 滿洲와 관련 있어하는 主張하는 바는 아니다. 例컨대 C.S. Chard와 北韓의 黑陶가 Siberia와 관련 있어하는 것인 몇字 言及한바도 있었다<sup>22</sup>. 그런데 鐵器時代의 이 可樂洞에서 나온 黑陶의 문양은 直線을 주로 많이 使用하고 있는데 特別 可樂洞黑陶(圖2)에 보이는 문양은 소련의 山林地帶 靑銅器時代의 土器인 Fatyanovo 文化의<sup>23</sup> 것과 비슷하게 注目된다. 한칸 건너 간격을 두고서 문양이 變했다는 點의 興味로운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한가지 例만으로 무어라 斷定은 할수 없으며 더 많은 資料의 續出로 鐵器時代의 黑陶의 問題가 세부적으로 밝혀지기 바라며 그렇기에 滿洲 Siberia 等地와도 계속 주의 要望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筆者는 土壙墓 出土의 黑陶와 甕棺에 對하여 간단한 敘述로 끝치며 其他 全體的인 해석과 자세한 過程은 報告書가 할 일이라고 믿기에 이 以上은 避하기로 하겠다. 그러나 完全한 黑陶를 포함하여 비교

적 重要的 遺物들이 出土되었기 때문에 上古史와의 연결된 解釋이 必要한 點도 있고 具體的으로 찾고 넘어가야 할 部分도 많이 있는 것이다. 土壙墓가 發掘된 地域의 歷史와 함께 이들 資料가 시사하는 많은 問題點이 뒤에 모두 밝혀지길 기대하는 바이며 이들 可樂洞의 土壙墓群의 臺城里의 土壙墓群과 함께 先史考古學及 上古史의 接近에 좋은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바이다.

註① 李弘植 一九六一, 可樂洞의 黑陶壺 現代敎養 創刊號 新丘文化社 pp. 4-5.

② 臺城里古墳群發掘報告 一九五九.

③ 金永培, 韓炳三 一九六九, 瑞山 大산面 百濟土壙墓發掘報告 考古學 第二輯

④ 金元龍 一九五二, 慶州九政里出土 金石併用 期遺物에 對하여 歷史學報 第一輯

⑤ 臺城里古墳群發掘報告, pp. 六七-六八

⑥ 上揭書, p. 六八

⑦ 西谷正 一九六六, 朝鮮におけるいわゆる土壙墓と初期金屬器について 考古學研究 一三一-一, pp. 一三一-一四

⑧ 李殿昌 一九六八, 大田 槐亭洞 靑銅器文化의 研究 亞細亞研究 三〇號 pp. 八一-八二

⑨ 臺城里古墳群發掘報告 pp. 七三-七四

⑩ 陳大爲 一九五五, 遼陽三道濼兒童甕棺羣發掘簡報 考古通訊 第二期 p. 五九

⑪ 拙稿 一九七〇, 韓國에 있어서의 南方文化論 白山學報 第九號 參照

⑫ 고고민속 一九六一-三 參照

⑬ 臺城里古墳群發掘報告 p. 六六

⑭ 王仲殊 一九五五, 墓葬略說 考古通訊 創刊號 p. 六九

⑮ 拙稿 靑銅器文化 一九七一年 University of Hawaii에서 개최되는 國際會議에 提出한 論文 參照

⑯ I.G. Andersson, 1943 Prehistory of Chinese, BMFEA, No. 15 pp. 77-78

⑰ 金廷鶴 一九六七, 韓國에 있어서의 黑陶文化의 問題 大東文化研究 第四輯

⑱ 金元龍 一九六六, 水石里出土의 黑陶小壺 韓國考古

⑲ 佟桂臣 一九五八, 吉林의 新石器時代文化 考古通訊 第二期 p. 七

⑳ 金元龍 一九六八, 先史時代(六七年度) 回顧와 展望 歷史學報 三十九輯

㉑ 會寧五洞原始遺跡發掘報告 一九六〇, p. 六〇

㉒ 上揭書 p. 六〇

㉓ C.S. Chard, 1960 Neolithic Archaeology in North Korea, Asian Perspective, Vol. IV Summer-Winter No.1-2

㉔ A.L. Mongait, 1961. Archaeology in the U.S.S.R. pl. 56